

일본을 감동시킨 한국 복지의 열정

윤기 호암봉사상 수상자 동경 축하연

자료협조 : 공생복지재단

윤기 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의 호암상수상을 축하하는 모임이 지난 10월 15일 동경에서 열렸다.

이날 축하연에는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영철 광주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이창열 일본 삼성 주식회사 사장, 오치미치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 이사장, 겐사구오하시 일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게이코 히구찌 회장(NPO THE WOMEN'S ASSOCIATION FOR A BETTER AGING SOCIETY) 등 한일 복지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해 윤기 회장의 수상을 축하했다. 윤기 회장은 참석한 귀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우연찮게도 오늘은, 목포공생원의 78주년기념일이다. 이 기념일에 동경에서 축하연이 열리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수상과 오늘의 축하연을 계기로 한일우호 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치미치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윤기 명예회장의 수상을 축하한 후 "그동안 윤기 회장이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많은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앞으로도 한일 복지발전 교류를 위한 다리의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게이코 히구찌 회장은 "그동안 윤기 명예회장은 재일동포 뿐 아니라 일본 복지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공을 세웠다"며 "앞으로 더 나은 한일의 복지발전을 위해 우리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축하연은 윤기 명예회장의 수상을 축하하며 일본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주최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윤기 명예회장은 호암재단에서 주최하는 호암상에서 올해의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일본 오사카 고베에 소외된 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재일동포 고령자들을 위한 노인 홈 고향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 축하 꽃다발을 전해 받은 윤기 명예회장.



▲ 수상을 축하하며 건배제의 하는 게이코히구찌 회장.

고향의 집은 건립 당시부터 재일동포는 물론 일본 사회의 각계 인사들로부터 큰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윤기 명예회장은 2006년 교토에 세번째 고향의 집 건립을 위한 착공을 마치고, 일본 전국에 10개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일본 전역을 누비며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왼쪽 부터 게이코 히구찌 회장, 오치미치오 이사장, 겐사구오하시 교수.